

06/07/2022

Korea Times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필라델피아 하와이 시카고 아틀란타 토론토

라디오서울 전자신문 KTOWN 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사회 경제 오피니언 핫이슈 한국홍소핑 한국TV 타운광고 & 뉴스 라디오서울 보이는 라디오 TV/VOD 보러가기

경제일반 한인 등 소수계도 관급 건설공사 쉽게 딸 수 있다

댓글 2022-06-07 (화) 남상욱 기자

- ▶ LA시와 카운티 정부 지원 프로그램 본격
- ▶ '입찰 업체 개발 CDABP' 무료 교육 제공...한인 업체들도 실제 참여, 성공 사례 나와

커뮤니티 전자신문 안내광고 업소톡 라디오서울



많이 본 기사

1/5

- 항공업계의 조종사 부족 해결책은 '아랫돌 빼... 전염병에 물가전쟁까지...세계경제에 스태그...
- "XX년아 뒤질라고" 1세대 아이들 ... 5
- FDA 자문기구,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승인...
- 피지, 압류한 러시아 재벌 오토 미국... 2
- 또 총기비극...자살로 보였던 남성, 2살아들...
- 이준석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 '우... 4
- 상원, 총기규제 협상 일부 진전...연령상향소...
- '필리핀 배낭 여행 주의보'...30대 한인 감금 ...
- 제1회 라디오서울 교육 세미나 1



CDABP 과정 이수를 통해 관급 공사에 참여하 소규모 한인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노 건설의 샘 김 대표(위쪽 사진)와 JHOG의 산드라 최재이콧 최 공동대표. [이노 건설·JHOG 제공]

한인 건설업체인 '이노 건설'(Inno Construction)을 운영하고 있는 샘 김 대표는 "LA 관내 관급 공사 수주에 이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관급 공사 참여 제고를 위해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건설업체에게 무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다.

김 대표는 "관급 공사를 따기 위한 무료 교육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아직은 작지만 매년 10만 달러 규모의 관급 공사를 꾸준히 진행해 사업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LA시와 카운티가 발주하는 소위 관급 건설 공사를 따내는 일은 소규모 한인 건설업체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하늘의 별따기'에 도전하는 한인 건설업체들이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업체 개발 및 입찰담보 프로그램'(Contractors Development & Bonding Program, 이하 CDABP)이라는 무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급 공사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인 업체들 중 일부 한인 업체들은 실제 공사 수주해 관급 공사 사업에 진출하는 성공 사례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들어 CDABP에 참여하는 소규모 한인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 CDABP는 '메리웨더 & 윌리엄스 인슈어런스 서비스'(MWIS)가 LA시와 카운티, 메트로 등의 지원을 받아 1997년에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소수 및 영세 건설업체들의 관급 공사 진출 확대를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이다.

MWIS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각 지역 정부의 관급 공사 수준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인 건설업체들에겐 공사 정보와 참여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DABP는 소수계, 여성, 장애인, 퇴역군인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CDABP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1대1 컨설팅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제이콧 최씨와 그의 아내인 산드라 최씨가 공동으로 지난 2018년에 설립된 'JHOG 설계 건설'은 무료 지원의 덕을 톡톡히 본 사례다. 이들 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의 위기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CDABP에 참여했다. 두 부부 공동대표들은 MWIS의 컨설턴트



Beautifully UP TO \$50 OFF

지식톡

더보기 >

- Q 한국 입국시 신원 확인 문제...** 2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미국에 20년전에 와서 1년5개...
- Q 9/11--18일 알라스카 크루즈...** 0
콜러스트어클럽 여행사에서 기획한 09/11-18 (7박8일) ...
- Q 알라스카 크루즈 건강강좌 마감...** 0
콜러스트어클럽 여행사에서 기획한 09/11-18 (7박8일) ...
- Q 무료상담 헤드립니다-비자 이민...** 0
무료상담 헤드립니다. ESTA 거절당하신 분이나 주방기...
- Q 크루즈 선상 건강 강좌및 한의사 ...** 0
한의사 선상 보수교육 및 일반인 건강강좌 안내코스 ...

한국 홈쇼핑 추천상품!

대박! 초간편 5분염색약
한국홈쇼핑 미주 독점판매

5분이면 오케이
셀프염색의 혁명!!

2개 사면 \$70
남녀공용 한국홈쇼핑 단독 런칭 3개 사면 무료배송 \$99.99

5분이면 오케이 셀프염색의 혁명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 [언론] 한국일보 광고국 파트타임
- [언론] Seeking Financial R...
- [사무직] 한국일보 취재기자(건설 및 경략) ...
- [사무직] 한국TV 서비스 고객센터 상담셋업...
- [사무직] Product Development...
- [패션] Montebello에 있는E-com...
- [기타] *** 무비자,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 [IT/디자인] [Streets Market] Da...
- [사무직] 홈타운 Secretary 구함
- [물류/운전] 무비자입국자 불체자들이 선호하는 미...

됐다"며 "6~7주 과정이 어려웠지만 관급 공사에 대한 정보와 함께 네트워킹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샘 김 대표는 "CDABP를 4주 정도 이수하면서 입찰 견적 작성과 계약 후 진행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배우게 됐다"며 "이제는 1년에 2건 이상은 관급 공사를 맡아 진행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CDABP를 통해 김 대표는 과거 경험에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전문가적 수준의 역량을 확보했다는 게 큰 수확이라고 했다.

이들 한인 업체들이 바라는 것은 보다 많은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JHOG의 산드라 최 공동대표는 "관급 공사 참여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전 이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한인 업체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해 혜택을 보고 교육 과정에 한국어 지원을 요구해 관철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 / 300자

글남기기

부동산 > 자동차

#116: 한인타운 16유닛 \$39...
\$3,999,000

[더보기>](#)

스마터리빙



[건강] 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 때 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건강] 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 [현대해운]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문들이 많죠. 문에 좋은 약



[라이프] 벌레야 물러가라! 천연 해... [현대해운]벌레야 물러가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건강] 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

카테고리 최신기사

연준 GDP 추적사이트, 2분기 성장을 전망 하향... 스페이스X 스타링크 상장 또 연기...머스크 "3... WB, 세계성장을 2.9%로 대폭 하향... "스태그...

테크기업들 "외국인 직원 성인 자녀, 추방되지 ... 엘런 "인플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정책 최... 크루그먼 "기상화페 폭락은 '빅스캠'...2008년 '...

내셔널 기사

'필리핀 배낭 여행 주의보'...30대 한인 감금 후 ... "중, 캄보디아에 비밀해군기지 금주 착공"...중 "

이준석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 '우크라이에 영... 중 "호주 도발 맞서 초계기에 쇠가공 공격"... 새...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2022.06.07

미주판/건강 / 경제/안내 / 안내광고

Weekly 경제건강

PDF 파일로 보기

포토뉴스



유인나 '화사한 미모'



핫이슈



엘런 "인플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정책 최우선 순위" 재닛 엘런 재무부 장관은 7월 40년만 에 최고 수준인 미국의 ...

오피니언

1/3

민경훈의 논판

민경훈 논설위원 자선 싸늘이와 운동권의 몰락

조윤성의 아프타임

조윤성 논설위원 11월 선거는 '문화전쟁'이다

이런, 나리 저런, 나리

고물가 시대를 사는 법

지사별 뉴스

NY DC SF SEA H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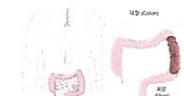


호를 주지사, 초강력 총기규제법 안 서명 캐시 호클 뉴멕시코주지사는 6일 역대 가 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총기규제 패키 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주...

[사 고] 취재 기자 모집

위클리 건강

자동차



대장암 유발하는 '게양성 대장암' 10년 새 4.8배



멋진 스타일·실용성·내구 성까지... 최고의 페밀리카

연예



'동심포맨' 김보성, 4억 빛진 이동준에 "다음 생 1...



BTS, 유튜브 쇼츠서 한 달 간 #MyBTStory 챌린...

Minority groups such as Koreans can easily get government-level construction works

06/07/2022

(Tue)

Reporter Nam 2022-06-07

Korea Times
English version translated via Google Translate

(경제)

- ▶ LA city and county government support program in earnest
- ▶ Providing free training on 'Bidder Development CDABP'... Korean companies also participated, and success stories were reported.





An increasing number of small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government-run construction by completing the CDABP course. Sam Kim, CEO of Inno Construction (pictured above), and Sandra Choi and Jacob Choi, co-representatives of JHOG. [Provided by Inno Construction, JHOG]

CEO Sam Kim, who runs Inno Construction, a Korean construction company, said, "I now have confidence in winning orders for government-run projects in LA." This is because CEO Kim participated in free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Koreans and minority construction companies to enhance participation in government-run construction.

CEO Kim said, "Thanks to the free education support program for obtaining government-funded projects, we are expanding our business scope by steadily carrying out government-level projects worth \$100,000 annually, although it is still small. said.

The reality is that winning so-called government-level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the City and County of Los Angeles is as difficult as 'picking the stars' for small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owever, there ar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hat are challenging the 'star picking in the sky'. These companies are challenging government-run construction projects through a free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 called the Contractors Development & Bonding Program (CDABP). Among the Korean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some Korean companies are creating success stories of entering into government-run construction projects by winning actual construction orders.

Recently, the number of small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participating in CDABP is increasing. CDABP is a free

support program for 'Merryweather & Williams Insurance Services' (MWIS), developed and operated in 1997 with support from the City, County, and Metro of Los Angeles, for small and small construction companies to expand their entry into government-run projects.

According to MWIS, the federal government is pursuing a \$1.2 trill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vestment plan, which is expected to expand the market for government-level construction in each region. To solve this problem, CDABP is targeting small construction companies run by minorities,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veterans.

The biggest advantage of CDABP is that it provides free advice on training programs for capacity building based on one-on-one consulting.

'JHOG Design & Construction', which was jointly established in 2018 by Jacob Choi and his wife Sandra Choi, is a good example of the benefits of free support. The couple participated in the CDABP to 'catch even the straw' amid the crisis of business closure due to the COVID-19 crisis. The two co-representatives met with MWIS consultants one-on-one to provide advice on bidding capacity, bid collateral and financial support, and exchanges with major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Co-CEO Jacob Choi said, "Through this program, I have gained confidence in the direction of the business and that it can be done. Although the 6-7 week course was difficult, we are seizing opportunities through networking along with information on government-run projects." .

CEO Sam Kim said, "After completing the CDABP for about 4 weeks, I was able to clearly learn the things to be checked after writing a bid estimate and after signing the contract. said. Above all, through CDABP, CEO Kim said that it is a great harvest that he secured professional-level competence by adding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to his past experiences.

It is agreed that what these Korean companies want is for more Koreans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Sandra Choi, co-CEO of JHOG, said, "I was afraid to participate in government-run construction, but now I think that I can increase the size of the company through this. said

Reporter Nam Sang -wook